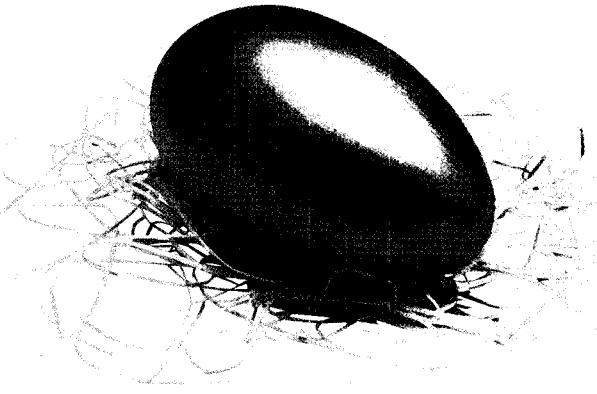


의료관광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

정부,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20만 명 유치 계획

정부는 글로벌 헬스케어를 신성장동력 산업 중 5대 고부가 서비스 분야에 포함시키는 한편, 의료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환자 유치를 허용하는 의료법을 개정했다. 또 의료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도 발표하는 등 오는 2013년까지 외국인 환자 20만 명을 유치해 의료서비스를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키우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이처럼 정부가 의료관광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황금알을 낳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세계의 의료관광 현황과 우리나라의 발전 과제를 짚어본다. ■ 김원혁(의학전문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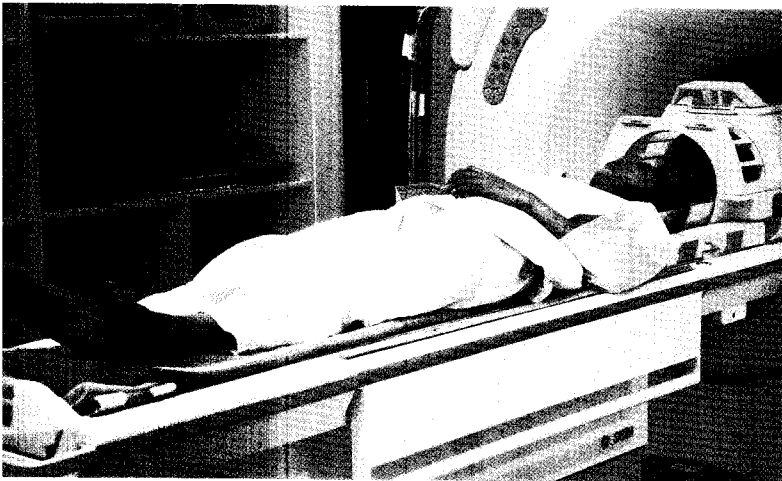


연간 150만 명 이상 유치하는 아시아 최대 의료 관광국, 태국

세계 의료관광 시장은 급속한 성장세에 돌입해 2012년 1,0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의료관광객 또한 2005년 1,900만 명에서 2010년 4,0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의료관광 진흥책과 해외 환자 유치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가동 중이며, 특히 태국·싱가포르 등 아시아 지역은 의료관광 허브 선점을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태국의 경우 지난 2007년에만 154만 명의 의료관광객이 찾았다. 2위 싱가포르 46만 명의 3.3배에 이르는 규모다. 태국은

2007년 아시아 국제의료시장 전체 매출의 40%인 12억 7,000만 달러를 벌어들였다. 태국은 천혜의 관광자원을 의료 서비스와 접목했다. 때문에 중증 질환자보다 성형수술, 지방흡입, 치과, 건강검진, 피부미용 등에 초점을 맞췄다. 태국 의료관광의 경쟁력은 저렴한 가격이다. 성형수술이나 치과치료 등 건강보험에서 제외되는 비보험 진료도 선진국의 20~80% 수준에 그친다. 전세계 190개 국에서 연간 40만 명의 해외환자가 방문하는 범롱랏병원을 비롯해 사미티웨이병원 등 태국 주요 병원은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통역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별도 창구에서 환자의 비자 발급까지 돕는다. 게다가 우수한 의료진과 의료시설 확충에도 공을 들여 태국에서 의료관광으로 유명한



병원은 모두 해외 유학파로 의료진이 구성됐다. 범룽랏병원은 의사 3명 중 1명 꼴로 미국 의사 자격증을 갖고 있다.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미국 국제병원 인증인 JCI 인증을 받은 곳도 태국이다. 태국은 또 의료와 경영을 분리해 선진국의 병원 경영 및 관리기법을 도입해 해외 자본 유치는 물론 해외에서 태국 병원 인지도를 높이는 효과도 거두고 있다.

해외마케팅과 병원간 경쟁을 통해 고급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싱가포르

태국과 함께 아시아 의료관광의 중심축으로 거론되는 싱가포르의 힘은 병원간의 경쟁 평가시스템이다. 싱가포르는 2·3차 의료 서비스의 80%를 담당하는 공공의료기관을 동과 서로 나눠 경쟁을 통한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이 두 권역은 매년 상호 평가 후 실적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이를 통해 싱가포르는 가격 경쟁력 강화와 인건비 상승을 억제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아시아의 바이오폴리스'를 기치로 내걸고 값싸고 질 좋은 의약품 공급을 위해 세계적인 제약회사들을 유치하고 R&D 공동센터를 설립하는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일부 병원에서는 해외환자를 위한 전용서비스센터를 운영해 진료예약, 항공권 구입, 숙박 및 관광, 공항픽업, 통역, 환전 등 외국인 환자에게 필요한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유명 병원 중 한 곳인 파크웨이 홀딩스는 싱가포르 내 3곳과 동

남아시아 지역에 총 11개의 병원을 운영하고 10개국에 40개의 연락사무소를 운영하는 해외마케팅을 통해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다.

입국절차·의료분쟁·인지도 등 해결과제 **첩첩산중**
우리나라는 태국과 싱가포르의 성공사례를 롤 모델로 활용해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모색을 벌이고 있으며, 가시적인 효과도 드러나고 있다.

올 1월 서울시 강남구가 181개의 강남구 의료관광 협력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008~2009년 외국인 환자 수, 진료과목, 출신 국가 등을 비교해 조사한 결과 지난해 11월 말까지 이들 기관이 진료한 외국인 환자수는 5만 7,361명으로 2008년도 4만 5,671명에 비해 25.6%(1만 1,690명)가 증가했다.

의료계는 해외환자 유치와 의료관광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입국절차(비자발급), 미비한 의료분쟁 방지 체계, 낮은 인지도,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한국의 의료관광 전략에 대한 부정적인 목소리도 높다. 보건복지부의 분석 결과 우리나라 병원들이 유치한 외국인 환자의 국적은 미국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부분이 재미교포이기 때문이다. 그나마 의료관광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분야는 성형외과, 피부과 등에 집중돼 있다. 이들 분야는 의료법 개정 이전에도 해외 환자를 받아온 분야다. 때문에 성급한 성과를 기대하는 게 무리란 지적이 크다. 아직 기본적인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고 수익 전망도 불분명한 데 지나치게 기대치만 높다는 것이다. 정부가 성공 모델로 제시하는 싱가포르는 병원의 90% 이상이 국가가 운영하는 공공병원이고, 태국의 경우 관광자원을 풍부하게 보유한 상태에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의료 마케팅을 펼친 사례이기 때문에 우리와는 조건이 다르다는 분석이다. 더욱이 태국의 경우 외국인 환자 진료에 전력을 다하기 때문에 내국인 환자의 진료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헬스케어 산업 육성과 같이 우리나라의 강점을 살린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의료 콘텐츠와 소프트웨어 산업에 집중 투자한다면 의료 수준을 높이는 것은 물론 국민에게 직접 혜택을 주면서도 외화를 벌 수 있다는 주장이다. ㉞